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홈 개막전 승리 축포 쏜다



지난 18일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삼척시청과의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3차전에서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득점 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 (KOHFA)

내일 오후 2시 광주빛고을체육관서 부산시설공단전 1승 2패 승점 2 리그 6위…“공격 앞세워 승점 따낼 것”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H리그 홈 개막전에서 승리의 축포를 노린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24일 오후 2시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는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4차전에서 부산시설공단을 상대한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6일과 1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대구시청과 삼척시청을 차례로 상대했다. 대구시청전에서는 27~21로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이 6골(공격성공률 66.71%)·1도움을, 이효진이 6골(공격성공률 75%)·4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특히 골키퍼 이민지는 무려 18세이브(방어율 50%)를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 경기 MVP로 선정됐다. 그러나 삼척시청전에서는 21~27로 패배했다. 이 경기에서는 김지현과 연지현

이 각각 6골 3도움, 6골 1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 승부처에서의 실패와 상대 골키퍼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로써 1승 2패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3점(득실차 -8)으로 리그 6위에 자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 선수단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베테랑이 대거 영입됐지만, 기존 선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지금까지 실책이 29개로 리그 8개 팀 중 가장 많다. 광주도시공사가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광주도시공사는 주포 김지현이 리그 득점 8위(16골)에 올랐다. 공격성공률(48.48%)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지만, 팀의 대부분 득점을 책임지면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연지현도 12골(공격성공률 70.59%)로 힘을 보태는 중이다.

또 강주빈과 이효진은 각각 도움 6위(11개)와 10위(10개)에 오르면서 활로를 열고 있다. 골키퍼 이민지는 세이브 3위(36개)와 방어율 5위(33.64%)를 달성하며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다만 매 경기 기록이 심한 만큼, 안정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도시공사에 상대할 팀은 부산시설공단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올 시즌 2승 1무 승점 5점으로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팀 대부분이 올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로 뽑을 만큼 전력이 강한 팀이다. 가장 강력한 경계 대상은 류은희다. 그는 다양한 국제무대를 뛰면서 활약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트백이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팀 전체를 아우르며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부산시설공단은 베테랑 피벗 원선필과 권한나 등 노련함을 지닌 선수들이 많다. 리그 최상위급 공격력을 뽐내고 있기 도하다. 3경기 동안 87득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따냈다. 상대 전적 역시 광주도시공사에 열세

다. 지난 시즌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부산시설공단전을 시작으로 3번의 홈경기를 치른다. 부산전 이후 경기에서는 인천시청, 서울시청 등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과의 경기인 만큼,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감독은 “선수단의 변화가 많았던 만큼, 아직은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서로의 스타일이 맞지 않다 보니 특히 스리백 쪽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부분은 훈련하면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 최근 특징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 공격 쪽에 키포인트를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선공단은 류은희를 필두로 원선필, 권한나 등 강력한 선수들이 많다. 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견제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골키퍼 전력은 비교적 약하다. 이 부분을 잘 공략해야 할 것 같다. 올 시즌 첫 홈경기인 만큼, 꼭 승점을 따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4라운드 마지막서 2위 현대건설 제압

세트스코어 3-1로 승리…상대전적 3승 1패로 늘려 조이 31득점 맹활약…시마무라·하혜진 등 힘 보태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리그 2위 현대건설을 제압, 4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했다. AI페퍼스는 지난 21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3-25 25-15 25-16 25-19)로 승리했다. 그 결과 9승 15패 승점 27점으로 리그 6위 자리를 유지, 최하위 정관장(승점 18)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또 올 시즌 현대건설과의 상대전적을 3승 1패로 늘리면서 우위를 이어갔다. 이번 경기에서 AI페퍼스는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1득점(공격성공률 51.92%)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도 16득점(공격성공률 65%)을 기록하며 살아난 공격력을 뽐냈다. 여기에 하혜진이 8득점(공격성공률 80%)을 뽑아내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장소연 감독은 이날 박정아·박은서(아웃사이드 히터), 조이(아포짓 스파이커), 하혜진·시마무라(마들블로커), 이원정(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는 상대가 웃었다. AI페퍼스는 시작과 함께 박정아가 킷 오픈, 블로킹을 성공시키면서 앞서나갔다. 하지만 쌍포 카리와 자스티스를 활용한 현대건설이 연달아 5점을 뽑아내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 이후 공격을 주고받던 양 팀은 23-23까지 시소계임을 이어갔다. 상대는 양효진이 박정아의 오픈을 막아내면서 먼저 세트포인트에 도달했다. 이어 카리가 킷오픈을 적중시키면서 1세트는 끝이 났다. 2세트는 AI페퍼스가 주도했다. 6-5에서 상대 이예림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승부가 확 기울었다. 기회를 잡은

AI페퍼스는 그대로 박은서와 조이의 킷 오픈으로 4연속 득점을 올렸다. 기세를 탄 AI페퍼스는 그대로 질주했다. 14-9에서 다시 한번 상대 서브 미스가 나왔고, 시마무라의 블로킹까지 더해지면서 7점 차까지 벌렸다. 여기서 하혜진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2세트가 마무리됐다. 3세트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AI페퍼스는 9-9 동점에서 이한빈의 킷 오픈과 상대 범실 2개, 조이의 3득점 등으로 연속 6점을 몰아치며 앞서나갔다. 우위를 점한 이후에는 이한빈, 박시랑, 박정아가 점수를 추가하면서 승부의 균형을 뒤집었다. 4세트에서 AI페퍼스는 상대 카리, 양효진, 김희진의 삼각편대 공세로 밀리는 듯했으나 중반부터 분위기를 바꿨다. 12-13에서 상대 카리의 범실로 균형을 맞춘 AI페퍼스는 이후 시마무라의 오픈과 속공, 박정아의 서브에이스로 16-13까지 달아났다. 22-19에서는 조이의 킷오픈을 시작으로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1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3-25 25-15 25-16 25-19)로 승리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전남 장애인 스포츠인 대축제 성공개최 온 힘”

도장애인체육대회 대표회의 단체 관계자 110여명 참석 종합 안전관리 대책 등 논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구례군이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구례군은 22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22개 시·군, 21개 경기단체 등 1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개최지 준비사항 보고, 대회 개최계획 및 참가 요강 설명 등이 진행됐다. 오는 2월 5일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전년 대비 종합 안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구례군은 22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전관리 계획을 강화하고,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구례군 전남체전 TF팀은 개·폐회식과 성화 행사 등을 전담할 대행사를 선정해 구례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개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박정연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대축제가 올해 구례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스포츠를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구례군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는 23일까지 장흥에 위치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서 체육영재 발굴 캠프를 개최한다.

도체육회, 미래 유망 체육인재 발굴·육성

오늘까지 장흥서 학생 250여명 대상 체육영재 발굴 캠프

전남도체육회가 지역 체육계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발굴에 본격 나선다. 2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장흥에 위치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서 체육영재 발굴 캠프를 개최, 체육영재 발굴에 착수한다.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추진되는 이번 캠프는 학교 운동부 학생선수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만을 제외한 일반 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숨은 운동 재능을 발굴하고

체육 꿈나무로서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이번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은 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근력, 근지구력, 근파워,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공인 체력 측정 항목을 통해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점검받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장점과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또 행사에 참여한 종목단체 관계자들의 지도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 체육 활동과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측정은 A·B팀으로 나눠 진행되며, 심리 검사와 체력 측정을 교차 운영해 학생들의 종합적 잠재력을 분석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력 측정을 넘어 학생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 유망 체육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체육회 공모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남 체육영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